

人力資源의 개발과 大學教育

吳 聖 三

(建國大 農業教育科)

1. 2000年代의 社會變化와 要求되는 人力資源

「제 3의 물결(The 3rd Wave)」과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이란 저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적인 충격의 물결을 불러 일으킨 엘빈 토플러는 未來의變化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이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現代社會의 課題임을 일깨워 준 바 있다.

그는 「제 3의 물결」이란 책을 통해 人類歷史의變化의 물결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제 1의 물결인 農業時代, 둘째는 제 2의 물결인 工業時代, 셋째는 앞으로 다가올 제 3의 물결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農業文明의 물결이 시작되어 수렵인·어로인·유목인 등이 약탈 농업 체제를 끝내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文明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인류 역사상의 첫번째 물결이었다. 이후 이 물결이 계속되다가 지금으로부터 3백여 년 전 기계의 발명으로 大量生産이 이루어지고 대량 소비와 메스 미디어 및 대중 교육 등이 확산되면서 工場式 시스템에 토대를 둔 생활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시대를 일컬어 제 2의 물결로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밀려오고 있는 未來의

文明을 제 3의 물결이라 이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人類文明의 물결 구분은 의하면, 지금 인류는 제 3의 물결 사회인 21 세기의 곧 다가올 미래를 향한 일대 비약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껏 제 2의 물결 시대를 움직여 온 특징을 規格化·專門化·同時化·集中化·極大化 그리고 集權化의 原理라고 할 때, 제 3의 물결 시대에는 점진적으로 脫規格化·脫專門化·脫同時化 등으로 대체되리라 본다. 즉, 제 3의 물결을 특징짓는 것은 脫大量化(de-massification)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大量生産·大量消費로 이어지던 제 2의 물결이 脫大量化로 탈바꿈하는 動因을 기술 발전, 특히 하이테크에서 찾고 있다. 컴퓨터의 등장과 通信産業의 발달은 기존의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점차 個體化하여 분산시켜 가고 있으며, 이같은 分散化는 정부의 의사 결정까지도 분산화시킬 것을 강요하게 되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2천년대……. 그것은 엘빈 토플러가 규정짓고 있는 「제 3의 물결」이 몰려 올 21 세기의 사회가 될 것인 바, 21 세기의 사회가 필요로 하게 될 人力資源의 問題를 예견해 봄으로써 이에 대비해야 할 人力資源의 開發 측면에서 大學의 役割

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情報社會로 특징지어지는 21 세기의 물결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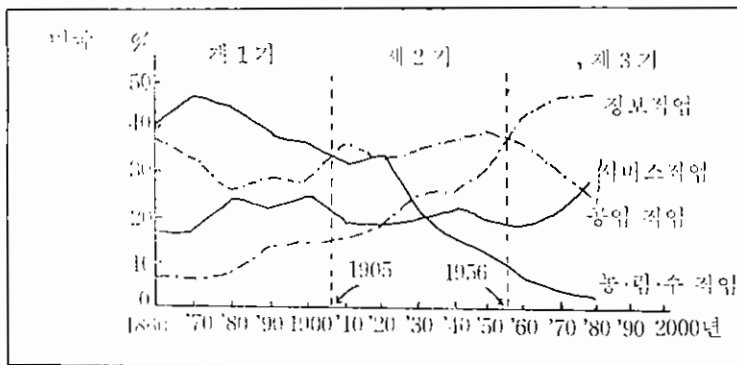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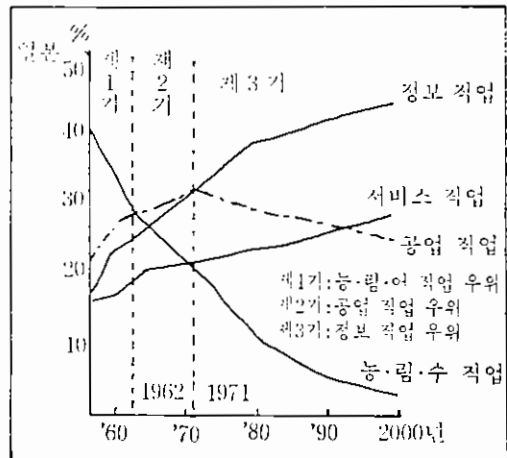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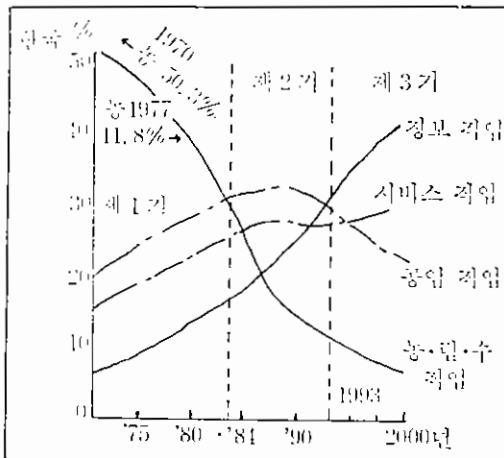
으며, 그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 서서히 성숙되어 가고 있다. 정보 사회의 총아로 등장한 컴퓨터, 그 중에서도 퍼스널 컴퓨터의

〈표 1〉 한국·미국·일본 산업 구조의 시대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농업 인구(40% 전후)	1860년	1955년	1977년
농업화 시대	1905년 이전	1962년 이전	1984년 이전
공업화 시대	1905~1956(51년간)	1962~1971 (9년간)	1984~1993(추정) (9년간)
정보화 시대	1956~현재	1971~현재	1993 이후(추정)
서비스화 시대	(더 먼 21세기 중에 형성)		

*출처: 洪格秀, "21世紀 職業社會의 變化와 教育課題", 韓國職業教育學會 年次大會 發表論文, 1990.

〈표 2〉 한국·일본·미국에 있어서의 직업별 취업 구조의 변천



*출처: 미국: Daniel Bell(미국 국제 조차 수정 이용)
 일본: 제니명인 일본 전기통신연구소(1983 이용)
 한국: 경제개발원 발표 통계 숫자 이용

보급은 이미 國內市場에서만 100 만 대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企業體에서는 물론 官·公署와 각급 學校마다 電算網 설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2000 년 까지 퍼스널 컴퓨터 1,000 만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91년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 流通 센터'를 설립하여 産業·技術 및 貿易 등에 관한 情報가 전국적으로 流通될 수 있도록 '情報院'을 설립하여 앞으로 5년 간에 걸쳐 300 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情報化 社會에 대처한 이같은 계획은 비단 컴퓨터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光케이블의 개통으로 地球村 時代의 情報·通信이 가능해졌고 1,300 만 회선의 전화 가입과 아울러 TV, 라디오 및 신문, 잡지 등 출판물과 뉴스 미디어의 본격적인 정보·통신의 발달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政治·經濟·社會·科學·文化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 없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참고로 韓國과 日本, 美國의 産業構造의 發展 段階를 시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앞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美國은 1956년, 日本은 1971년에 이미 情報化 社會로 진입한 데 비해 韓國은 1993년부터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미국에 비해 37년, 일본에 22년이 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뒤늦은 출발이라 하지만, 한국의 정보 산업이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을 추격하는 데에는 상당한 속도로 따라 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앞의 <표 2>의 韓國, 日本, 美國에 있어서의 職業別 就業構造의 변천 추세 곡선에서도 잘 말해 주고 있다.

<표 2>에서는 우리나라의 職業別 就業構造의 변천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農·林·水産分野의 직업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 情報分野의 직업이나 서비스 직업이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의 현저한 차이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 3기의 시작이 양국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지만, 급상승 추

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人力資源의 開發 측면에서 볼 때, 情報職業分野의 인력 배출이 質的인 면은 접어두고라도 量的인 공급 면에서 절대 수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서비스 직업 분야의 대표적인 호텔 경영이나 관광 경영 분야의 人力資源 開發이 기존 大學들로부터 관심권 밖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KDI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國民總生産(GNP)規模는 1984년 不變價格으로 2000년에는 약 2,500 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1인당 GNP는 5,000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현재의 先進國 水準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 성장의 지속에 따라 産業構造도 더욱 高度化되어 農·林·어업 부분의 비중은 더욱 감소하고 광공업 부분과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부분의 비중도 증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국형 産業構造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人力資源 供給源으로서의 大學, 무엇이 問題인가?

다가올 21세기의 미래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고급 人力資源의 주공급원인 한국의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大學 位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未來學者들에 의해 예견되고 있는 미래 사회를 주도해 갈 産業構造는 각종 情報産業 주도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다음에 서비스 분야의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이 분야의 고급 인력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國內 教育界와 社會가 함께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배출해 내는 인력과 사회가 흡수해 들이는 인력 간의 供給·需要의 不均衡 내지는 不一致의 문제일 것이다.

人文系 高等學校를 졸업하면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 實業系 高等學校 졸업생들은 각 企業體에서 요구하는 人力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專門大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大學을 졸업한 高等失業人口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社會現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도 工科大學의 尖端分野 졸업생들은 졸업도 하기 전부터 취업 계약이 이루어지는 반면, 아직도 많은 학과의 졸업생들은 大學을 졸업한 후에도 2~3년씩 취직 시험을 위해 재수·삼수의 과정을 거치며 잠재 실업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人力資源의 供給處인 大學에서 배출해 내는 인력 자원이 社會가 要求하는 분야의 人力需給과의 不一致에 기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면 무엇이 이같은 人力需給의 不均衡을 낳게 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理由와 變因들이 작용했겠지만, 主要原因은 무엇보다 學校組織과 社會組織 사이의 변화 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난 문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學校社會의 變化速度는 상당히 느린 데 반해 社會의 변화 속도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學校를 ‘靜的인 組織’으로, 社會를 ‘動的인 組織’으로 구분짓기도 한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 변화의 속도에 加速이 붙음과 동시에 社會機能의 分化는 專門化·細分化의 현상에 세포 분열을 하듯 幾何級數의인 분화 현상을 보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분야의 職種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지극히 느린 학교 조직의 기능은 과거 우리 사회의 한 時代的 요청에 의해 생겨나게 된 學科들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계속 변화를 거부 내지는

방관한 채 지탱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學問의 領域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알맞게 신축성 있게 修正 내지는 補完, 그리고 경우에 따라 尖端分野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는 原論의인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어느 대학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학과 설립 당시의 시대적 필요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설립된 학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 필요한 분야였기는 하지만, 가깝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앞서 지적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분야가 상당 수 남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네 대학들의 현실이다.

전반적인 현상은 低學歷 技能工들의 경우 심각한 人力難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高學歷者들의 過剩供給 현상으로 다량의 高等失業者를 量産하는 일에 大學이 기여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물론 이같은 고등 실업자들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대학들의 모든 전공 분야의 현상은 아니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尖端學問 分野들도 상당 수 되고 있다. 문제는 오늘의 대학이 20년, 30년 전의 時代的·社會的·學問的 需要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던 학과들을 시대의 변천에 따라 탈바꿈시키지 못한 상태로, 해마다 입시 때만 되면 벌떼처럼 몰려드는 受驗生들 덕분에 4년간 8학기의 등록금을 고박고박 받으면서 學科 運營에 별다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의 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표 3〉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 체계에 대한 의견

구	분	구성비 (%)
· 學科 編成이 지나치게 細分化되고 類似學科가 重複되어 있다.		15.4
· 학과의 性格에 따른 教育機關別 配分이 부적합하게 되어 있다.		18.3
· 學科設置가 敎授中心으로 이루어지고, 產業系 需要와 관계없는 학과가 많다.		13.9
· 閉鎖的인 학과 중심 敎育課程編成으로 學問系列間·學科間的 連繫性和 공통성이 부족하다.		33.2
· 未來指向的인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 학과 설치가 缺如되어 있다.		13.0
· 其 他		6.3
계		100.0

〈표 4〉 산업 인력 공급과 대학교육

구	분	구성비 (%)
· 産業界의 發展趨勢에 대응해 직업교육이 彈力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0
· 전반적으로 인력 공급이 過剩狀態이지만, 質의 水準은 低下되고 있다.		28.0
· 産業現場에는 活用되기 어려운 理論教育에만 치우쳐 있다.		18.3
· 尖端産業部門 등 새롭게 發展이 이루어져야 할 分野에서 必要 인력이 輩出되지 않고 있다.		9.4
· 學界와 産業界 사이에 協力教育體系가 확립되지 않아 産業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良質의 인력 양성·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3.1
· 대학별로 特徵있는 教育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2
· 其 他		2.2
계		100.0

는 점이다.

여기서 참고로 '89년 4월에 大韓商工會議所가 조사한 「産業人力 就業實態 調査報告書」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과 편성 체계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과 〈표 4〉를 보면 폐쇄적인 學科中心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학문 계열간·학과간의 연계성과 공통성의 부족(33.2%)을 지적하고 있고, 學科의 성격에 따른 教育機關別(專門大學, 大學, 大學院 등) 배분이 不適合(18.3%)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과 편성의 細分化和 類似學科의 중복 문제, 그리고 産業系 需要에 대응한 未來指向의인 尖端産業分野의 學科 設置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大學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변화는 大學定員의 再調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학은 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文教部의 통제 하에 놓여 있으므로 지나친 硬直性을 모면할 길이 없는 입장이다. 文教部 역시 經濟企劃院이나 기타 관련 部處와의 협의 하에 대학 입학 정원을 산출하고 있겠으나, 대학의 입장, 특히 私立大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특정 분야의 인력을 교육시키고자 하여도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린다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든 실정이고 보면, 大學에 미래 産業構造에 대처하기 위한 能動的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말할 나위 없이 힘이 드는 실정이다. 현재의 制度下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인력 자원 개발을 위해 대학이 취해야 할 단 하나의 선택은 각 대학의 법정 정

원 허용 한도에서 전공 분야별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서 제시한 시대별 산업 구조의 변천과 그 예측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는 분야의 정원을 줄이고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입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한 언제까지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기능할 수 없는 수많은 학과들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專攻不問·適性不問·將來性不問의 전제 하에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입학만이 목적인 상당 수의 수험생, 그렇게 해서 대학 입학의 영예(?)를 안고 4년 간에 걸쳐 한 학기에 백여만 원 안팎의 돈을 8학기 동안 바친 댓가로 손에 받아든 大學 卒業狀 하나…….

그것은 곧 高等失業人口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티켓'과 같은 것은 아닐지? 간혹 전공과 무관하게 사회 진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의 또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되겠지만, 대학을 나와 失業 내지는 潛在 失業者 群에 속하게 될 高級人力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시골에서 논밭 팔고 소를 팔아 자식 하나 성공하기를 고대하며 돌보아 온 학부모들의 허탈한 뒷바라지의 結果를 大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이를 본인이 自慈의으로 한 選擇이었고, 4년간 게을리 공부한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인가? 4년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아도 결국 취업의 문은 불가능 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같은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옛부터 정해진 人員만큼의 新入生

을 계속 모집한다는 것은 비록 학생들이 점수에 맞추어 할 수 없이 그같은 學科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大學 당국은 教育的 犯罪(?)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學科 設立의 목적이나 전공과 관련하여 단 몇 사람의 졸업생조차도 敎職에 진출시키지 못한 수 많은 私立 師範大學의 상당한 學科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고, 農業系列의 상당수 學科들도 그러한 실정이다.

이같은 분야에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과 같은 需要·供給의 심각한 不均衡을 이미 오래 전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었기에 文教部로부터 師範系列 신설 억제와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이 설마 설마하는 안이한 태도와 4년제 대학의 간판만 내걸면 전국 어느 곳이든 물러드는 수험생들에 힘입어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자초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 물 난리가 날 때마다 天災이었는데, 人災이었는데가 논란이 일곤 하듯이 高等失業者의 屢産 또한 모르고 만들어 냈는가, 알고 만들어 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도 정확한 해답과 아울러 더 이상 個人과 家庭, 그리고 國家의 人力資源 開發이라는 차원에서 教育的 犯罪行爲가 恣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文教부에 의해 정해진 일정 수의 入學定員을 뽑아야 할 대학들의 입장이라면, 學生 個人의 장래를 위해서나 그를 뒷바라지 하는 家庭을 위해서 그리고 國家의 장래를 위해 시대적으로 낙후된 기존의 학과나 전공 분야들을 통·폐합하거나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학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길은 大學 自體를 위해서도 여러모로 유익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2000년대의 문턱에서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21세기의 主役들을 개발해 내야 하는 대학이 현재 인력 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과감한 改革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현상 유지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머지않아 대학은 장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날이 도래할 것이다. 현상 유지는 곧 退步를 의미한다는 現代 經營의 냉엄한

논리는 教育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 전국의 農科大學들이 이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自救策으로 農科大學의 명칭을 바꾸거나 專攻學科들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몇몇 대학들은 이미 이같은 허가 신청을 文教部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의 專攻分野의 변신은 單科大學의 명칭을 고치거나 專攻學科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과의 專攻內容을 이루고 있는 커리큘럼이 現在 또는 未來의 產業構造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것들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커리큘럼이 未來指向의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학과의 이름이나 單科大學의 명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敎職의 積滯現狀을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師範系列의 상당수 학과들이 教育公務員法 改正案이나 敎職養成 綜合對策案의 國會 통과 여부를 앞에 놓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해가며 명분 싸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師範系列의 재정리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동일한 師範系列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과에서 어떤 專攻을 하느냐에 따라 교직 사회의 수요·공급에 엄청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변화들을 실제로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장애물들이 사방에 놓여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필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韓國 大學의 實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냉소를 보내는 사람들도 상당수 되리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高級 人力資源의 開發’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현실 과제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3. 變化를 위한 에필로그

호르히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며

구르지 않는 틀에는 이끼가 끼게 마련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듯 幾何級數的으로 늘어가는 社會의 分化와 그에 따른 새로운 學問과 産業構造의 출현은 能動的인건 受動的인건 간에 대학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내부적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까지 그럭저럭 지내다 수동적인 변화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같은 두 가지 선택의 차이는 시간의 連續線上에서 먼저 택하느냐 나중에 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겠으나, 그 결과는 名門大學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國際社會의 변동, 특히 올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타결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 대학들의 존립 위기로까지 몰고 갈 형편이다.

이제까지 좁은 국토 속에서 어찌보면 既得權 내지는 先制占領의 방식에 의거하여 大學의 名聲이 형성되었는지 몰라도 앞으로의 大學은 美國 大學들처럼 다른 요인들에 의해 명성이 뒤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최근 들어 우리 대학들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大學 教授들의 質의 水準이 점차 平準化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一流·二流·三流로 구분되던 대학들의 學生 水準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앞으로 계속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는 展望을 한다. 이같은 현상들은 아직도 보수 성향이나 전통적인 價値의 변화에 크게 집착하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 속에서 단시일 안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 수준까지는 教授와 學生 水準의 同質化 현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하에 名門大學이 있다면 그것은 곧 앞서가는 大學을 지칭하는 말이 될 것이고, 앞서가는 大學은 곧 社會의 변화에 合理的·能動的으로 대처하는 大學을 의미할 것이다.

어찌보면 대학은 음식점과 같은 곳이어서 음식점의 메뉴에 따라 그 經營의 成敗가 좌우되듯이 大學의 메뉴는 그 大學이 가지고 있는 專攻學科인 수밖에 없다. 좋은 메뉴가 있는 음식점

은 그 규모가 화려하거나 크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듯 大學 캠퍼스가 조금 협소하고 기존의 건물들이 다소 낡았다 하더라도 學科 專攻이 좋은 大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국내 대학들이 8·15 해방과 더불어 新興私學들을 중심으로 雨後竹筍처럼 생겨나던 시대를 일컬어 한국 大學史의 제1의 물결로 區分지어 본다면, 1960년대에 文教部가 大學들의 定員數를 늘려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각 大學들이 앞을 다투어 聽講生들을 모집하여 大學을 量的으로 팽창시켜 나가던 속칭 '牛骨塔'에 비유되던 時代를 제2의 물결로 區分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韓國 大學의 제3의 물결은 社會構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체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時代는 바뀌었다. 바뀌어도 너무나 바뀌었다. 과거 궁했던 시절에 밀기울 섞인 수제비를 사먹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같은 음식을 찾지 않는다. 앞으로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수제비 음식점을 고집하는 大學 經營人이 있거나 수제비밖에는 만들 줄 모르는 주방장 아저씨처럼 전공 분야에서 尖端 知識과 機能을 보유하지 못한 教授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도태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大學은 巨視的인 안목을 가지고 國際競爭에 대처할 준비를 서둘러야만 할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 사회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 대학의 분교가 속속 국내에 진출하리라는 전망이고 보면, 언제까지나 안일하게 변화에 무관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여 이미 10년 전부터 대처하여 왔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안일하게 대처해 오다 오늘날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될 이 현상이 10년 이내에 韓國 大學에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 韓國 大學이 짙고 넘어가야 할 課題가 있다면, 20세기에 開設되었던 專攻學科들을 21세기 次元에서 하나 하나 검토하여 변형할 학과들은 변형을 하고 커리

클럼의 수정·보완을 요하는 분야들은 그 나름대로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더 이상 存在 理由가 없는 分野들은 과감히 未來 需要가 예상되는 分野로의 改革的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 세기에 존재하던 대학의 학과들을 '21世紀 學問의 叢'로 걸러내어 叢 위에 남은 未來指向的인 學科와 分野를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叢 밑으로 떨어진 學科와 分野들은 통·폐합하여 새로이 각광받는 學科로 대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같은 발상에 대해 지나치게 과격한 주장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大學의 학문 영역이 반드시 就業와 關連되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反論을 제기하는 순수 과학자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未來社會의 多樣性을 들어 현재는 비인기 학과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역시 모든 學科들이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人力資源의 開發이라는 측면에서 大學教育은 效率性이나 能率性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個人의 행복과 그 개인이 소속해 있는 家庭과 社會와 國家를 위해 결코 터무니 없는 발상만은 아닐 것이다. *